

한·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

-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중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힘.
 - 지난 7월 30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음(주간브리프 Vol.29).
- 상호관세는 7월 합의대로 15%를 지속 적용하며, 대미 금융투자 3,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,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,500억 달러로 구성됨.
 - (현금투자 2,000억 달러)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함. 이는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게 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협상 결과임.
 - (조선업 협력 1,500억 달러[MASGA])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, 기업의 투자와 보증 및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임.
 - (대미 금융투자 수익 배분)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:5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,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음.
 - (투자금 회수 안전장치) 원리금이 보장되는 “상업적 합리성*”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, 한국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함.
- *상업적 합리성: 투자위원회가 선의(good faith)에 따라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판단된 투자를 의미
- (관세 인하)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%로 인하됨. 반도체의 경우,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함. 또한, 의약품, 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, 항공기/부품,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
- (농산물 시장 개방) 쌀·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,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·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함.
-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·조선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최초 부과 수준인 25%보다 완화되었으며,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해소됨.

■ 미국–한국, EU, 일본 대미 투자 합의 비교 ■

	한국	EU	일본
대미 투자 규모	3,500억 불	6,000억 불	5,500억 불
세부 방식	현금 2,000억 불, 조선업 1,500억 불, 연간 투자 상한액 200억 불	민간기업 투자에 따라 EU에서 금융지원	원전, 에너지 설비 3,320억 불, AI 인프라 750억 불 등
수익배분방식	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	해당사항 없음	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
기타 합의	에너지 1,000억 달러 구입	에너지 7,500억 달러 구입	농산물, 에너지, 방산·항공 구입 등

출처: 대통령실('25.10.29); 중앙일보('25.10.29)



세계 경제 동향

● 미국, 기준금리 0.25%p 인하 | 2025-10-30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; 매일경제TV; 2025-10-23 한국은행

- 2025년 10월 3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ederal Reserve Board)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25%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현재 기준 금리는 4.0%임.
 -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 조치로, 고용 둔화와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함.
- 또한, 12월 1일부로 양적긴축(Quantitative Tightening, QT) 종료를 결정함.
 - 이는 2022년부터 진행된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,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됨.
- 이번 결정에는 제롬 파월 의장, 존 윌리엄스 부의장 등 다수 위원이 찬성하였음.
 - 일부 위원은 0.5%p 인하(스티븐 미란) 혹은 금리 동결(제프리 슈미트)을 주장하며,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러냄.
- 연준은 '최대고용과 물가안정'이라는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향후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여건,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.
- 반면, 지난 10월 2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.50%로 동결하기로 결정함. 이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(2% 내외)을 지속하는 가운데,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임.
- 또한,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,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.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 확대 부담을 완화시키면서, 한국은행에 정책적 여유를 일부 제공했다고 평가됨.

| 2024년 1월~2025년 10월 한·미 기준금리 추이 |





국내 경제 동향

●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0.3p 하락 | 2025-10-28 한국은행

- 2025년 10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*에 따르면, 10월 소비자심리지수(CCSI)는 109.8로, 전월 대비 0.3p 하락하였음.
- *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(2003년 1월~2024년 12월)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을 초과하면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,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.
 -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94를 기록하며, CCSI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함.
-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(CSI)는 110으로 전월과 동일함.
 - 교육비(101) 전월 대비 2p 상승, 의류비(99), 외식비(98), 교통·통신비(107), 주거비(105) 각각 1p 상승
 - 나머지 품목은 전월과 동일
- 물가수준전망CSI는 146으로 전월 대비 1p 상승
 -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.6%로 전월 대비 0.1%p 상승
 - 3년 후 및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각각 2.6%로 전월 대비 0.1%p 상승
 -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(물가 인식)은 3.0%로 전월과 동일
-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 (53.8%), 공공요금 (38.7%), 공업제품 (32.2%) 순이었음.
 - 집세(+4.0%p), 석유류(+3.2%p) 등에서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, 공공요금(-4.7%p), 농축수산물(-4.3%p) 등에서 응답 비중이 감소함.

| 2024년 10월~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|

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, 농산어촌 공헌 활동 공식 인증제도 실시 | 2025-10-24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 10월부터 기업의 다양한 농산어촌 공헌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.
 - 공헌 활동에는 금전적 기부, 기술 지원, 인력 파견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·판매 촉진, 농촌 관광 및 교류 활성화, 환경 보전 활동 등이 포함됨.
 - 농림수산성이 심사를 거쳐 공헌 활동 실적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며, 해당 기업은 이를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.
- 제도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 활동을 가시화하고, 농산어촌 지역이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.
 - 농림수산성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산어촌이 직면한 과제 해결과 기업의 ESG 활동 연계를 목표로 2024년 '농산어촌 임팩트 가이던스'* 발표
 - 기업은 신뢰성 있는 공헌 활동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져 ESG 경영과 연계 가능성성이 커지고, 농산어촌은 새로운 협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.
- *농산어촌 임팩트 가이던스: 기업의 농산어촌 공헌 활동 참여 시 발생하는 사회적·경제적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시각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라인
- 농림수산성은 이번 제도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, 기업과 지역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| 일본 '농산어촌 공헌 활동 공식 인증제도' 주요 내용 |

구분	주요내용
선정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농산어촌에서 공헌 활동을 수행했으며 향후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
공헌 활동 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식량의 안정적 공급, 농림수산·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,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농산어촌 외부 인재 유입, 농림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- 도로 휴게소 등의 정비를 통한 농산어촌 인프라 유지 외의 활동

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- **김장철 대비 배추 공급 안정 및 원산지 관리 강화** | 2025-10-23 농림축산식품부 ; 2025-10-26 농림축산식품부 ; 2025-10-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 -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(11~12월)을 앞두고 배추·무·고추·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,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라고 발표함.
 - (배추) 생산·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며,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분 방출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. 다만 일부 지역에서 무름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면밀한 관리 필요
 - (무) 가을 무의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나, 기상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
 - (고춧가루) 국산 고추 수확량은 평년 수준이나, 건조·가공 원료 확보와 저장 물량 관리가 중요
 - (마늘·생강) 저장분과 수입 조절을 통해 공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,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 관리 필요
 - (양념류 전반) 정부 비축·수입 조절 물량을 적기에 방출해 수급 안정 추진
 - 김장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계약재배 확대, 수매·비축 물량 방출, 도매시장·대형 수요처 공급 강화 등 대응책을 가동함.
 - 농촌진흥청·지자체·농협과 협력하여 생육 모니터링, 병해 관리, 약제·영양제 지원을 병행
 - 현장 점검 결과, 충북 괴산 등 주산지는 전반적으로 생육 상태가 양호하며, 전체 공급에는 큰 차질 없을 것으로 평가됨.
 - 한편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·절임배추·고춧가루 등 원재료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함.
 - 온·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,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병행
 - 특히 온라인 판매 증가에 대응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

김장철 주요 재료 공급 전망

품목	공급 전망	정부 대응
배추	재배면적 확대, 재고 확보 → 공급 원활	비축물량 활용
무	재배면적 확대, 재고 확보 → 공급 원활	비축물량 활용
양념채소 (고춧가루·양파·대파·생강)	대체로 안정적 공급 전망	별도 조치 없음
마늘	가격 상승세	비축물량 방출
쪽파	작황 부진으로 강세	생육 관리 강화
배	생산량 증가(전년 대비 +13.4%) → 공급 원활	계약재배 확대
수산물 (천일염·새우젓)	충분한 공급	대한민국 수산대전 통해 저렴하게 공급
수산물 (멸치액젓)	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	대체 소비 유도